

# 아동실종때 '영장없이 인터넷기록' 본다

앞으로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종 아동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영장없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종 혹은 가출 청소년의 인터넷 기록을 보려면 영장을 발부박아야 했고 이 탓에 신속한 발견이 어려웠다.

## '실종 아동' 개정법률 오는 25일 시행 가출 및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기대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경찰이 실종(가출) 청소년을 추적할 때 영장 없이 인터넷 접속기록을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본인 확인 정보와 접속 기록 정보를 요청하는 데 두 번의 영장이 필요했지만 이 과정을 없애 수사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기존의 사전등록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신청자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담긴 서류를 10년관 보관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제기돼 왔다.

뉴스스

## 美여성, 낳다보니 아들만 14명 출산

미국 미시간 주 락포드 지역의 한 여성이 14번째 아이를 출산했다. 놀라운 건 그가 낳은 아이가 모두 아들이라는 점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제이·캐서린 슈완츠 부부는 전날 14번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25세 딸이 시작으로 줄줄이 남자 형제만 둔 슈완츠 가족은 막내가 태어날 때까지 성별을 몰랐다고 말했다. 제이는 올해 초 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웬지 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제이는 미리 성별을 아는 것에 대해 "추수감사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13명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막내가 여동생이길 바라는 그룹과 아닌 그룹이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13명의 형들은 이날 병원에 가 태어난 지 이를 뒤 14번째 남동생을 처음으로 만났다.

막내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13명의 이름을 지은 제이는 "우리는 이름을 짓는데 있어 정말로 창의적이야 한다"며 "막내 이름은 형들의 투표를 통해 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캐서린은 자신 역시 7명의 남자 형제와 6명의 여자 형제를 두고 있어 대가족이 익숙하다고 설명했다. 슈완츠 가족은 출산 전 부부와 13명의 아들, 5명의 아들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제이는 "나는 가족이 많은 게 너무 좋다. 대가족이 아닌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중서 용선경기 연습중 보트 전복 17명 사망

중국 남부 광시(廣西) 좡족자치구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보트 2척이 전복돼 17명이 사망했다.

구이린(桂林) 시 시우펑(秀峰) 구 타오화정(桃峯江) 강에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용선(龍船) 경기 연습 중이던 보트 2척이 잇따라 전복됐다.

용선 경기란 중국 단오절인 음력 5월 5일에 중국 전역에서 열리는 전통 경기로, 이들은 단오절을 앞두고 연습에 나섰다다가 사고를 당했다.

보트 2척에는 총 57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연습 도중 배가 전복되면 서 물에 빠졌다.

중국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선박 8척과 200여명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 활동에 나섰지만 17명은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명은 구조됐다.

보트 전장은 18m으로 최대 승선인원은 30명으로 탑승 인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탑승객들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가자지구서 팔레스타인 시위대 4명 사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 간 충돌로 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이날 15세 소년을 포함해 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천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의 분리장벽 근처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군은 실탄과 최루가스로 대응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장벽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전단을 투하했다. 그러면서 장벽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가자지구에서 '위대한 귀환 행진'이라는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베를린 중앙역 인근서 2차대전 불발탄 발견

독일 수도 베를린 도심에서 20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투하한 불발탄이 발견돼 약 1만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무게가 500kg인 불발탄은 중앙역 인근의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고, 해체 작업 진행시 안정을 위해 반경 2km 내의 시민 1만명을 대피하도록 했다.

철도 당국은 이날 열차는 오전 10시부터 중단됐고, 해체 작업이 시작된 11시30분부터는 인근 지역 지하철 및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폭탄 처리 전문가들은 오후 1시에 폭탄에서 기록 장치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지금 '명때리는 중'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22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너른들뜰에서 열린 '2018년 한강 명때리기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각각각색의 포즈와 소품을 이용해 '명 때리기'에 도전하고 있다.

## 성실의무 위반 징계받은 공무원, 시장 상대 소송서 승소

법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속한 전남 모 자치단체 B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B 시장은 지난해 3월 A 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분명하고 불합당한 징계를 했다.

전남도의 징계사유 통보에 따라 다른 공무원 C 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의결된 만큼 A 씨는 지체없이 시 감사과에 통보, 제삼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 씨는 징계처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신의 업무상 지위·담당했던 업무의 성격·과도한 업무

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시장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통보는 A 씨를 수신자로 해 이뤄졌다. 그 무렵 처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상급자를 통해 시장에게 C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보고했으며,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해 제삼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C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A 씨가 그 내용을 우선으로 감사과에 통보했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진 경우 그 결과를 업무 협조 차원에서 감사과 담당 직원에게 우선으로 알렸을 뿐 서면

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 역시 부서 상급자들을 통해 징계의결 요구권이지자 처분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며 감사과에도 우선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통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전력 또한 전혀 없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당시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따라 이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도 함께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 "징계처분으로 인해 시장이 달성하게 될 공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포상 공적의 상실·1년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근무성적평정 감점·공무원으로서의 명예 훼손 등의 불이익은 상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춘정 기자

## 전남도, 1590곳 시설물 2400억 투입 보수·보강

전남도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2만 120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1590개소에 대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21일 밝혔다. 보수 및 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은 교량, 병원, 요양시설, 공동주택, 급경사지, 농업용 저수지,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1507개 소였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83개소였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434억 원이다.

전남도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시설 관리 주체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57개 시설에 대해서는 20일 재난관리기금 2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최근 화재와 어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병원, 유치원 등 각종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점검 실명제, 점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민원한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는데 집중해 이뤄졌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시설물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라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등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민간전문가, 공무원, 시설관리주체 등 2만 6천366명이 참여해 안전관리대상 2만 1200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김정환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h-well**

국민건강보험